

2025
제3권

해양수산 ODA 리포트

목차

- 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 ② 주요 의제
- ③ 전문가 기고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01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제3차 유엔 해양총회,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UNOC3)는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프랑스와 코스타리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10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 참여했다.¹⁾
- 총회의 주제는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전방위적 행동 동원을 촉구했다.
- UNOC3의 핵심 성과로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BBNJ 협정의 조기 발효 지지가 확인되었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 또한 조용한 바다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a Quiet Ocean), 해양관광 협약(Ocean Tourism Pact), 해양 금융기구(One Ocean Finance Facility) 등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으며,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긴급 행동을 위한 단결(Our Ocean, Our Future: United for Urgent Action)이라는 정치 선언문을 채택해 국제사회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조성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UNOC3는 해양 오염, 기후위기, IUU 어업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강화의 장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SDG 14 이행 과정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²⁾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1) UN Ocean Conference Nice(2025.6.13.), Third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Nice 2025, <https://unocnice2025.org/en/> (검색일: 2025.09.09.)
2) IISD, Summary report, https://enb.iisd.org/2025-un-ocean-conference-summary?utm_source/ (검색일: 2025.09.09.)

페루 정부, 어업 근절을 위한 OECD 권고안 가입

- 페루 정부는 2025년 6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수산위원회(COFI)가 최근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권고안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페루가 OECD 가입 후보국으로서 수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 이번 권고안은 IUU 어업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안국 관할권 밖이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어업 활동에 대한 지원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³⁾
- 이와 관련하여 OECD COFI는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페루를 공식 방문하여, 페루의 OECD 가입 과정의 일환으로 수산·양식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COFI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현지 실사 중 하나로, 페루 수산 거버넌스의 현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COFI는 페루의 투명성 제고, 국제 협력 참여, 연안 공동체 참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산쿼터 관리, 비공식 부문 축소, 지역정부와의 정책 일관성 강화가 향후 개선 과제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⁴⁾
- 이번 실사는 페루가 OECD 가입 절차에서 수산 거버넌스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향후 OECD COFI의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3) PRODUCE, Gobierno del Perú se adhiere a la recomendación de la OCDE para combatir la pesca ilegal, <https://www.gob.pe/institucion/produce/noticias/1181747-produce-gobierno-del-peru-se-adhiere-a-la-recomendacion-de-la-ocde-para-combatir-la-pesca-ilegal>(검색일: 2025.09.09.)

4) PRODUCE(2025.6), Report on the First Visit of the OECD's Fisheries Committee (COFI) to Peru (English version)

탄자니아, 펴바섬에 신규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발표

- 탄자니아 정부는 제3차 유엔 해양총회에서 펴바섬(Pemba Island) 해역에 두 개의 신규 해양보호구역(MPA)을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신규 MPA는 북동 펴바 보전구역(837km²)과 남동 펴바 보전구역(468km²)으로, 총 1,300km² 이상에 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게 된다.
- 보호 대상에는 70km²의 산호초, 26km²의 잘피밭(seagrass beds), 34km²의 맹그로브 숲이 포함되며, 멸종위기 상어와 가오리 서식지 역시 보호된다. 해당 해역에서는 파괴적 어업행위(예: 그물 선망, 끌그물)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산호 복원구역을 포함한 관리·이용 구역 설정이 추진된다.⁵⁾
- 탄자니아 청색경제·수산부(Ministry of Blue Economy and Fisheries)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번 지정은 탄자니아의 장기적 해양 보호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야생동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가 과학적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공동체 기획 과정을 지원했으며, 티파니앤코 재단(Tiffany & Co. Foundation), 블룸버그 자선 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등 주요 기금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성사되었다.⁶⁾
- 펴바 동부 해역은 기후 회복력이 높은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평가되지만, 과거 국제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번 MPA 지정은 지역사회의 생계와 해양생태계 회복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5)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Tanzania Declares Two New MPAs in Pemba Island Biodiversity Hotspot at UN Ocean Conference, <https://www.newswise.com/articles/tanzania-declares-two-new-mpas-in-pemba-island-biodiversity-hotspot-at-un-ocean-conference>(검색일: 2025.09.09.)

6) Africa Blue Economy, Marine conservationNewsTanzania, <https://www.africablueeconomy.com/tanzania-declares-two-new-mpas-in-pemba-island-biodiversity-hotspot-at-un-ocean-conference/>(검색일: 2025.09.09.)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개발은행(CAF), 블루 이코노미 활성화 위한 투자 확대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은행(CAF)은 2025년 6월 모나코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및 금융 포럼(BEFF)에서 향후 2030년까지 총 25억 달러를 블루 이코노미 활성화와 해양 보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리스본 회의에서 제시한 기존 약속의 두 배 규모로, CAF는 이번 결정을 통해 블루 금융 분야의 선도적 다자개발은행(MDB)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냈다.
- 새롭게 제시된 CAF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은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 확대, ▲지역 협력을 통한 ‘블루 외교’ 강화, ▲교육 및 역량 개발을 통한 인적자원 기반 확충, ▲지역적 가치 창출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 촉진이라는 4가지 측면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CAF는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역내 국가들의 해양·연안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⁷⁾
- 이번 발표는 세계경제포럼(WEF) 및 세계자원연구소(WRI)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5 유엔 해양회의(UNOC)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CAF는 이미 2022~2025년 기간 동안 17개 신용사업과 18개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13억 2천만 달러 규모를 집행하며 기존 목표(12억 5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새롭게 제시된 25억 달러 추가 투자 라인은 저탄소 해상운송, 해양보호구역(MPAs) 강화, 소규모 어업 지원, 해양 생명공학·디지털 인프라 등 혁신기술 개발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흐름은 해양의 기후변화 완충역할(탄소 흡수 등)과 해안 지역사회의 생계 보장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띤다.
- 글로벌 차원에서 여전히 해양 보호 자금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번 CAF의 투자 확대 약속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강화하고, 해양자원을 보편적 공공재로 관리하려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민정 연구원
mjlee@kmi.re.kr

7)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AF to invest USD 2.5 billion to boost the Blue Econom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caf.com/en/currently/news/caf-to-invest-usd-25-billion-to-boost-the-blue-economy-in-latin-america-and-the-caribbean/>(검색일: 2025.09.09.)

8) Reuters, Latam-Caribbean development bank doubles oceans funding to \$2.5 billion.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latam-caribbean-development-bank-doubles-oceans-funding-25-billion-2025-06-07/>(검색일: 2025.09.09.)

FAO, 세계 해양어업자원 현황 발간

- FAO는 2025년 「세계 해양어업자원 현황(Review of the State of World Marine Fishery Resources - 2025)」을 발간하며,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글로벌 어족 자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지역별 데이터를 결합해 SDG 14.4(지속 가능한 어족 관리) 이행 상황을 측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평가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세계 해양어업 자원의 64.5%가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35.5%는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남획 자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74년 10% 수준이던 남획 자원은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로, 자원 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어획량의 77.2%는 지속가능한 자원에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상업적 어종의 관리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다. 그러나 소규모 어종과 지역 특화 자원은 관리 체계의 미비로 남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어종별·지역별 관리 역량의 불균형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FAO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해양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북동태평양(92.7%)과 남서태평양(85.5%)은 가장 높은 지속가능성을 기록한 반면, 지중해·흑해(35.1%)와 동남태평양(46.4%)은 여전히 심각한 남획 상태에 놓여 있다. 인도양 동부(72.7%)와 동중양대서양(약 60%대)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데이터 공백과 평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 주도의 관리 체계가 구축된 해역과 관리·감시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 해역 간에 구조적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⁹⁾
- 본 보고서를 통해 도출되는 향후 핵심 과제는 이미 입증된 관리 방안을 확대 적용하고, 미비한 지역에서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FAO가 추진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수생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공급,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생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⁰⁾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민정 연구원
mjlee@kmi.re.kr

9) Sharma, R., Barange, M., Agostini, V., Barros, P., Gutierrez, N.L., Vasconcellos, M., Fernández Reguera, D., Tiffay, C., & Levontin, P. (Eds.). (2025), Review of the state of world marine fishery resources - 2025.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o. 721. Rome: FAO.

10) FAO, FAO releases the most detailed global assessment of marine fish stocks to date.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releases-the-most-detailed-global-assessment-of-marine-fish-stocks-to-date/>(검색일: 2025.09.1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2025년 6월 유엔 해양회의(UNOC) 개막일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전체 약 480만km²를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 약 110만km²는 고강도 또는 완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어업 및 자원 추출 활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단일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MPA 지정으로, 글로벌 30×30 목표(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 보호)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 다만 지정 이후의 이행 과정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광대한 해역의 감시·통제 부담, 불법·미보고·규제외 어업(IUU) 확산 위험, 제한된 예산과 인력, 섬으로 분산된 지리적 특성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성 및 원격 탐지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반 선박 추적, 항만국·기국 통제 강화, 법적 처벌 체계 확충, 공공·민간 및 국제기구 자금 조달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다.¹¹⁾
- 이에 IUCN은 해양 보호 확대를 위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양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과학 기반 관리, 지역사회 참여형 거버넌스, 공정하고 포용적인 자원 동원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해양 보전이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¹²⁾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민정 연구원
mjlee@kmi.re.kr

11) OceanMind, French Polynesia just created the world's largest MPA — on World MPA Day, reflections on what implementation will take. <https://oceanmind.global/knowledge-hub/french-polynesia-just-created-the-worlds-largest-mpa-on-world-mpa-day-reflections-on-what-implementation-will-take/>(검색일: 2025.09.11.)

12) IUCN, Major Breakthrough: Marine Conservation Unveiled at UN Ocean Conference. <https://iucn.org/press-release/202506/major-breakthrough-marine-conservation-unveiled-un-ocean-conference>(검색일: 2025.09.11.)

02 주요 의제

해양수산 ODA의 새로운 물결: PPP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1960년대 한국의 원양어업 진출은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민간기업과 선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축적한 경험은 오늘날 한국 해양수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한국 선원들은 아프리카, 남미, 유럽의 항구를 거점으로 생활하며 외화를 송금했고, 이는 한국 가계 경제와 산업화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민간의 역동성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될 때,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실질적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사회가 직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도전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적이다. 기후변화는 어장 변동과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와 해양 산성화는 연안국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식량 안보 문제 역시 해양수산 부문과 직결된다.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연안국과 군소도서국(SIDS) 등에서는 인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50% 이상을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량 감소와 물류망의 취약성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해운·항만 체계 역시 Covid-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거치며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특히 ODA(공적개발원조)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이다. PPP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자금, 기술, 역량을 투입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서비스, 제도 개선을 구축·운영하는 민관 협력 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공공의 공익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결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ODA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는 해양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성장, 식량 안보 달성의 핵심 기반으로 보는 청색 경제(Blue Economy) 패러다임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P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수산양식, 원양어업, 항만, 물류, 해운, 조선, 해양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민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DA 재원과 결합될 때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또한 경제부처로서 산업과 수출 연계성이 높아 PPP 추진에 유리하다. 다만, 아직 해양수산부 ODA에서는 PPP 사업 사례가 없다.

이는 필요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PPP를 기획하고 사업화할 제도적 장치와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해양수산 ODA에 특화된 PPP 플랫폼을 신설해 민간, 공공, 학계, 국제기구 간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과 보증체계를 활용하여 민간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하며, 수산양식, 항만, 해운, 해양 ICT 분야 등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성공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PPP 참여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부처의 선행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KOICA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민간의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협력국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K-Food+ 사업을 통해 현지 생산, 가공,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종자, 농기계, 농자재 수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라이트펀드, RIGHT Fund)을 통해 정부,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저개발국의 백신, 치료제, 진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 PPP형 ODA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민간 기술과 자본을 제도적으로 결합해 공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에서, 향후 해양수산 PPP를 기획·추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된다.

해양수산 PPP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 친환경 사료, 질병 관리 등 민간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해조류·패류 양식은 블루카본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효과도 크다. 해운 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LNG, 암모니아, 전기추진 선박 등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PPP 사업이 유망하다. 항만 분야에서는 스마트 항만과 콜드체인 물류망,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포트’ 모델이 가능하며, 해양환경 분야는 위성 데이터, IoT, GIS 기반의 IUU 어업 대응, 디지털 해양 플랫폼 구축, 해양 쓰레기 재활용 산업 창출 등이 잠재력 있는 분야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지원하는 해양수산 기술혁신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PPP 기반 ODA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예컨대 세계 최초로 로봇을 활용한 선체 부착물 제거 장비를 개발한 한국 기업은 IMO가 추진하는 선박 탈탄소화, 연료 효율 개선, 해양생물 전파 방지 의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기업과의 PPP는 ODA 자원과 민간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국제 규범 이행은 물론 새로운 글로벌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술혁신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재 수출 진흥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ODA 자원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판로 확대를 넘어 협력국의 해양수산 수요를 충족하는 PPP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기업 지원정책과 ODA 사업의 융합은 한국 해양수산 PPP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PPP 기반 해양수산 ODA는 단순한 자원 보완 수단이 아니다. 공공의 공익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결합해 식량 안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라는 글로벌 의제 달성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다. 이는 청색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부합하며, 동시에 한국 해양수산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해양수산부가 가진 경제부처적 강점을 살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원양어업 진출이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듯, PPP형 ODA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해주 연구원
hj@kmi.re.kr

03 전문가 기고

급변하는 ODA 정세 속 한국 해양수산 ODA의 방향에 대한 소고

트럼프행정부의 ODA 때리기가 한참이다. 이에 질세라 전통적 공여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의 ODA 감축도 너 나 할 것 없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가 나서서 26년 ODA 예산을 1조2천262억원 감축한 안을 발표하며 실용외교 측면에서 ODA를 재편성 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2022년 주요 공여국(미국, 영국, 호주)의 근래 ODA 전략에서 관찰되는 국익과의 연계성 강화 현상을 논문으로 작성한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작금에 관찰되는 주요 공여국의 ODA 국익화 경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소위 선진국이 직면한 경제침체 하에서 보편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써 ODA 보다는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써 ODA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반영한 ODA 비전 재정립(미국과 영국은 비전에 ODA가 국익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개편(영국과 호주의 독립원조기관을 외교부로의 통합)들이 관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대통령의 임기와 ODA 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기간이 일치되는 상황을 만들며, 동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비롯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 역시 각국이 ODA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새롭게 수립된 정부의 국정기획위가 ODA를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기초, ODA 관련 국제적 정세와 담론 그리고 ODA의 기본철학인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 ODA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KMI가 최근 발행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2025)는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ODA 정세, 개도국의 동 분야 수요와 도전과제,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 강점과 역량, 우리 정부의 대외전략 및 해수부의 해양수산 주요 이니셔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양수산 ODA 전략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ODA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의 ODA 전략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필자는 동 연구가 2030년까지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이정표로서 충분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 글을 통해서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안보 및 해운물류 거점에 전략항만 개발을 위한 ODA 사업의 필요성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하에 전략적 요충지에 전략항만을 매우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EDCF 전문가로부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해운 국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스리랑카 등을 비롯해 각 전략 요충지에 전략항만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려를 접한 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자는 우연히 우리 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ODA 관련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해군 함정이 해양 작전 중에 사고, 정비, 물자 보급시에 협력할 해외 항만과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군사 분야의 지원은 ODA 불인정 대상이나,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ODA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군사적 목적이 아닌) 해양안보적(해양경찰 역량강화 사업은 다수 존재하나) 측면에서의 사업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KMI의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전략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ODA 적격 수원국에 전략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으로써 패키지 사업의 발굴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EDCF를 활용한 전략항만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으나) 이번 4차 국제개발협력의 키워드는 ‘국익’과 ‘실용’일 수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제시된 해양수산 ODA 전략과 사업을 ‘국익’과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스크린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 국정기조 하에서 무상 ODA 사업을 재검토 및 정리 대상 사업을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양수산 ODA도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으며, 필요시 대외전략과 더 밀접하게 연계된 신규사업의 발굴이 뒷받침 되어야 정부의 ODA 영역에서 해양수산 OD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재부는 ‘공급망’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급망에서 핵심인 해양항로와 물류, 선박의 관점에서 해양수산 ODA 사업의 추가 발굴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해양수산 ODA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제고 전략의 수립 및 이행 활성화로, 해양수산 ODA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관료 및 ODA 연구자 그룹에서 그 이해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인태전략과 함께 해양수산 ODA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해양수산 ODA는 주목받지 못했으며, 전체 ODA에서 해양수산 ODA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한다. KMI는 이의 극복을 위해 최근 관련 학회에 적극적인 연구협력 및 학회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 기관, 전문가 집단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외교부 및 KOICA, 기재부와 EDCF, 해군 및 해양경찰 간 공동사업의 발굴 및 정책대화 채널의 마련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문경연 교수

〈주요 이력〉

-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위원장
- 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 현) 무상원조관계기관회의 민간위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0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해기교육 이해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사업(KIMFT)

▶ 추진배경

-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이하 수원국)에는 실습선 미보유,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적절한 해기교육 수행이 어려움. 또한, 해기교육교원의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수원국 해기교육 관련 정책기반 또한 미흡하여 관련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희망

▶ 사업 목적

- 수원국 해기교육교원,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들(이하 연수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및 승선 실습 체험 과정을 통한 양질의 해기교육 역량강화 지원
- 연수생의 해양분야 법제발전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정책관계자들 간 국제협력

▶ 수원국 및 주요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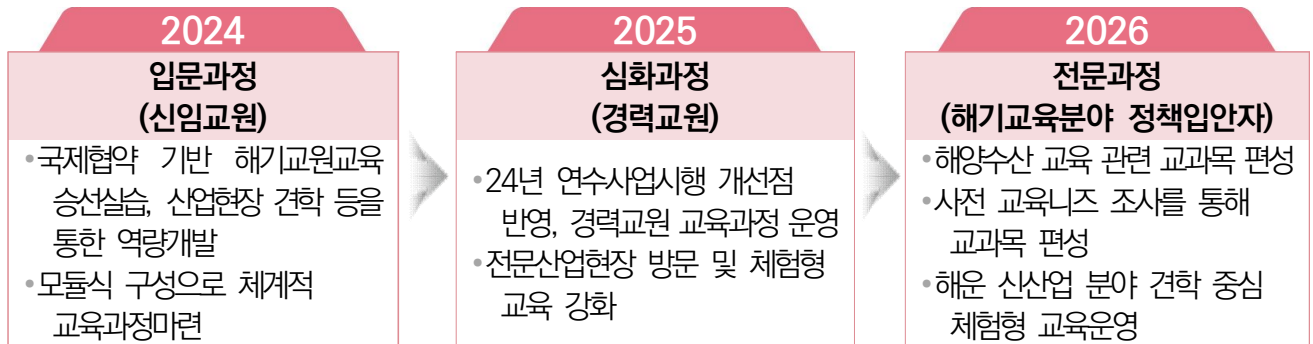
- 수원국: 아시아 중남미 지역 7개국
(중점 5: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 일반 2: 태국, 멕시코)
- 주요 파트너: 수원국 해기교육 관련 정부기관, 단체 및 해기교육기관

▶ 기간 및 예산

- 기간: 3개년('24년~'25년 / '24년 3개월, '25~'26년 각 2개월)
- 예산: 3,000 백만원 ('24년: 929백만원 / '25년: 1,003백만원 / '26년: - 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연수생 선발 및 초청: 각 수원국 배정인원 및 자격조건에 따라 추천자 취합 후 선발
 - ☞ '24년 입문과정: 경력 5년 미만의 신임교원 21명(완료)
 - ☞ '25년 심화과정: 경력 5년 이상의 상급교원 21명(진행중)
 - ☞ '26년 전문과정: 해기교육분야 정책입안자 21명(폐지)



-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사업 목적 및 연수생 요청사항 등에 맞춰 8개 모듈 개발 및 운영

8개 프로그램 모듈
Module I 해기교원 교육과정
Module II 국제교원안전교육 과정
Module III 실습선 승선실습 관련 과정
Module IV 국제협약 기반 해기교육과정
Module V 글로벌 선상문화 교육과정
Module VI 해운산업 현재와 미래 관련 교육과정
Module VII 국별보고, 국제컨퍼런스 등
Module VIII 공식행사, 문화체험 등 특별활동

- 연수과정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 ☞ 프로그램 모니터링 교원 및 연수생 관리 사감이 연수과정 전체 모니터링 및 관리
- 국제연수교육과정 개발연구 워크숍(국별보고, Action Plan 발표 등) 운영 시행
 - ☞ 국별보고, Action plan을 통해 파악한 국별 해기교육시스템현황에 맞춰 본 프로그램을 본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발표
- APEC SEN 선원정책 국제컨퍼런스 참석
 - ☞ APEC SEN 선원정책 관련 국제컨퍼런스에 연사, 패널 등으로 참석하여 해기교육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연수사업의 홍보 및 전파
 - ☞ 온/오프라인 활용한 국내외 보도자료 배포, 각종 국제회의(IMO TC, APEC SEN 위원회 등) 참가 시 사업홍보, 사업 홍보물, 기념영상 제작 및 배포 등

▶ '25년 추진현황

- 1월: 2025.01.20. 사업 계약 및 착수
- 4월: '25년 사업 착수 보고회(2025.04.07.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 5~7월: 프로그램 일정 계획, 연수생 선발/초청 등 연수 시행 준비
- 8월: 2025.08.03. 연수생 입국 및 25년도 연수 프로그램 시작
- 8월~10월: 2025년 초청연수 프로그램 진행(8/03~10/01, 2개월)
 - 2025.08.06. 입교식 및 2025.08.19. 환영식 완료
 - 2025.09.25. 수료식 예정 (계획 수립 중)
 - 2025.09.30.~10.01 연수생 출국 예정 (항공편 일정에 따라 단계별 출국)

▶ 향후계획(2025년)

- 10월: 2025.10.01. 연수생 출국 및 25년도 연수 프로그램 종료
- 10월~11월: 25년도 프로그램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준비
- 12월: 25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 종료

▶ 기대효과

- 단기
 - 선진 해기교육 과정 전수 및 체험을 통해 연수생 개별 해기교육 관련 역량강화 및 글로벌 해기교육품질 향상
 - 연수 중 맺어진 다국적 연수 수료생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장기
 - 연수생이 전수받은 선진 해기교육 과정으로 각 수원국의 우수 해기인력 양성에 기여
 -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국제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해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 친한(親韓) 글로벌 해기교육 교원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및 향후 교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민 교수(국제협력팀장/책임연구원)

star@seaman.or.kr

▶ 추진현황(2025년)

- 2월: 제52차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확정
- 3월~9월: FAO-해수부 협약체결 사전 준비
- 8월: 제3차 유엔 내륙개발도상국 회의(LLDC3) 참여, 부대행사 개최

* 행사명: Sustainable Aquatic Value Chain Development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주요내용: 한-FAO 협력을 통한 동 사업 지원 추진 발표, 내륙국 내수면 어업 및 양식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및 생계 개선 방안 논의, 내륙개발도상국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 관련사진



제3차 유엔 내륙개발도상국 회의(LLDC3)

왼쪽: FAO 도서국·최빈국·내륙국 담당국 국장
 오른쪽: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 향후계획(2025년)

- 10월: FAO-해수부 사업 협약 체결
- 11월: 잠비아 대상어종 확정 및 프로젝트 착수 워크숍
- 11~12월: 키르기스스탄 대상어종 확정 및 프로젝트 착수 워크숍

▶ 기대효과

- 내륙개발도상국의 지리적 한계와 취약성을 극복하여 대상 어종의 가치를 극대화할수 있는 법 제도·경영·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지원
- 한국의 수산자원 스마트 양식 솔루션 도입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가능성 모색, 국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여가시성 제고

* 내수면 어종 관리방안, 가공처리, 부가가치 창출 등 최적 관행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 등 국내 기관과 협의 중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성화 관측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 지원(KIOST)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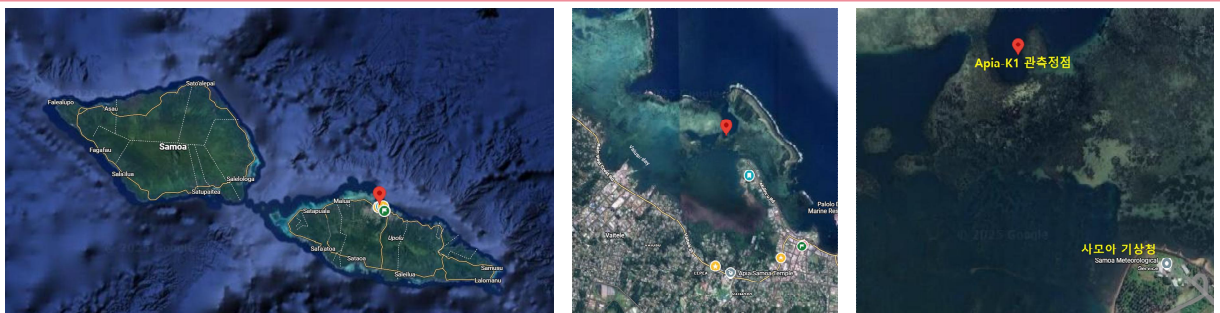
- 태평양도서지역의 생존이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쌍둥이 악재라고 알려진 해양산성화를 최소한의 외부도움으로 자체적으로 추적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양과학정보기반 대응정책방향 설정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SDG 14.3를 이행하기 위한 해양산성화관측 과학기술의 고도화 진행을 지원함

▶ 사업 개요

- 해양산성화관측 과학기술의 고도화 진행(인프라고도화, 고도화 시설환경확보, 전담인력 역량강화, SDG 14.3 이행지원 등)
- 사업기간: 2022~2026년
- 사업비: 30억 원

▶ 사업 대상

- 사모아 우폴루섬 아피아(Apia)시 Mulinu'u 반도 해역



사모아 우폴루섬 아피아시 물리뉴반도에 위치한 기상청 및 주변해역에 지정된 관측정점

▶ 추진현황(2022년~2025)

- 22.4월: 사업 착수(1차년도)
- 23.3-4월: C19팬데믹 국경폐쇄 해지 후 현지 방문 및 사모아 정부대상 사업활동 보고, 현지 기확보 기자재설치/연구시설 구축, 시스템구축/운영개시, 국제네트워크 관측정점 등록신청 전담인력역량강화 (이론/인프라활용 소개/실물경험 중심) 진행
- 23.7-24.4월: 2차년도 사업 개시, 현장 관측시스템 운영, 해양산성화관측데이터 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년도 이론/반복실습 위주 전담인력 역량강화 진행

- 23.11월: 재외공관(NZ) 사모아 현지방문 및 현장실사/이행점검
- 24.5-12월: 3차년도 사업 개시, 현장인프라 운영관리, 해양산성화관측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체 축적(공개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 3차년도 데이터/문제해결 실무중심 전담인력 역량강화 진행
- 24.11월: 재외공관(NZ) 사모아 현지방문 및 현장실사/이행 점검
- 25.1월~계속: 4차년도 사업 개시, 현장인프라 운영관리, 관측데이터 추가확보 및 축적, 4차년도 장비개발자 전문가초청 전담인력 역량강화 진행

▶ 관련사진



사모아 해양산성화 관측 인프라시설(연구실/분석장비, 보트/트레일러/램프, 부이운용컨테이너, 해양산성화전담 부이) 및 현지 전담인력 반복/실습위주 역량강화 활동

▶ 향후계획(2025년)

- 25.11월: 재외공관 사모아 현지방문 및 현장실사/이행 점검
- 25.~12월: 현지 자재확보 및 운송, 기장비 검교정, 해수확보 및 분석 진행, 내부중간평가 진행

▶ 기대효과

- 현지 기후변화로 인한 OA에 따른 적응/대응 전략 개발에 기여를 통해 태평양소도서지역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여 현지 환경의 기본적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가능 및 전문인력 확보
- 수원국의 역량확보 지원을 통해 구축된 해양산성화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대한 스스로의 힘으로 자체적 해양산성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립적 해양환경문제 대응 역량확보 지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지 해양과학발전을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입지 향상 및 해양산업 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관계 확대기대
- 사모아 자국 국가해양산성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반인프라(장비, 인력) 확보에 기여
- OA 및 연안생태계 반응을 우리해역의 OA 대응방안 자료로 활용
- 수원국과 공여국의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수립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SDG 이행
- 현지 소도서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따라 과학외교에 긍정적 영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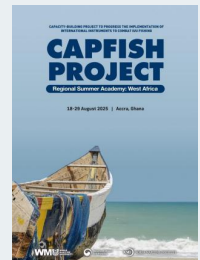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미진 책임기술원
cmlee@kiost.ac.kr

05 주요 행사

기추진 행사

2025 WMU-MOF-KMI CAPFISH 여름 아카데미: 서부 아프리카 대상

- ▶ 일정
 - 2025년 8월 18일(월) ~ 29일(금) / 가나 아크라 개최
- ▶ 참석대상
 - (참여 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B), 가나 수산위원회(GFC), 콩고민주공화국 농림부, 기니만중서부수산위원회(FCWC), 세네갈 국립해양수산청(ANAM), 세네갈선원학교(ENFM), 나이지리아 베냉대학교, 퓨 자선기금, US 연안경비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대한민국 조업감시센터(FMC), 해양경찰청 등
 - (참석자) IMO, ILO, FAO, 세계은행 등 61개 기관 포함의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연구자, 어업 단체 관계자 (약 100여 명)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 주요내용
 - 서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어업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IUU어업 관련 세부 주제(소규모어업, 해상범죄 등) 소개, 패널 토론, 국가별 사례 연구(Case Study) 및 토의형 세션 등 진행



패널 토론



단체 사진

향후 계획

2025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개최

▶ 목적 및 방향

- (목적) 해양수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국 실무자와의 교류를 통해 신규 융합형 협력사업을 발굴
- (방향) 2025 아워오션콘퍼런스(OOC), 한국해사주간, BADA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위급-실무급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협의-도출-컨설팅-제안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연계 구조를 구축

*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으로 수원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강의, 현장 견학 등 제공하고 해양과학, 수산양식, 해양환경 등 국내 유관기관과 매칭하여 수원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22~)

▶ 기간 및 장소

- 2025. 10. 23.(목) 14:00~17:30 /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 (10.21) 한국해사주간 콘퍼런스 연계 참석 / (10.22) BADA 프로그램 : 강의 및 컨설팅 / (10.24) BADA 프로그램 : 현장 견학

▶ 행사 개요(안)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주제) 한-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Sailing Toward Shared Prosperity through Korea-Asia Cooperation
- (참석자) 국내·외 실무급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약 100명
- (주요 프로그램)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K-OEI: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소개, 협력국별 도전과제 및 맞춤형 협력방안 공유, 신규 협력사업 제안 및 공동 논의 등
- (세부 협력 분야) 해양 경제, 기후변화, 해양 오염, 해양 안보, 해양 디지털

*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의제 기반 세부 협력 분야 설정 및 융합형 사업 발굴 예정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예섭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사무원

염승식 국제개발협력센터 사무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서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